



환경부, 국가교육기관 최초로 민간업체의 교육훈련비 지원

지난 11월 20일부터 민간환경기술인력이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납부한 교육훈련비를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 노부호)은 민간환경업체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동부와 협의한 결과, 정부교육기관 최초로 금년 11월 20일부터 교육훈련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금년 2월 환경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을 계기로, 환경관련업체 기술인력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경감하여 좀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민간환경업체 기술인력들은 종전처럼 교육훈련 등록시 먼저 교육훈련비를 납부하고, 이후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여부가 확인되면 납부한 교육훈련비를 추후 노동부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민간환경기술인력이 연평균 2천명 수준이고, 1인당 5만원정도 교육훈련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환경관련업계 전체로는 연간 1억원 정도의 교육훈련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훈련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첫째, 노동부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둘째, 당해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는 실내공기질측정기술요원과정,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대기측정기술요원과정, 토양환경기술요원과정, 소음진동측정및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수질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등이 있다.

국립 환경인력 개발원에서는 홈페이지 (<http://nierd.me.go.kr>)에 자세한 사항을 수록하여 관련업체가 최대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훈련비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민간환경업체의 교육 훈련효용도가 증가됨으로써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민간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관계자는 내다보았다.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내에 위치해 있고, 원장



을 포함한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 및 자치단체의 환경관련공무원, 교사, 대학생 및 민간환경관련업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환경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능과 역할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 실무교육 실시로 자율적점검 참여유도와 환경법령 위반을 크게 감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단장 : 김정호)에서는 2006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팔당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유관단체, 협의체 산하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율적 환경시설 점검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시 불신감 해소와 법령위반 적발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그동안의 1회성 단속으로 적발→처벌 위주에서 예방적 예고차원의 환경관리방법, 유형별 점검 사례 등을 알려 스스로 개선 및 관리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게 됨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교육은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법의 일환이라는 평가이다.

교육강사로는 환경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환경감시단 류수현 팀장으로 관할특별대책지역 내 환경실무교육과 외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주관 환경전문가 교육과정에 위촉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는 수질TMS구축사업시행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3종이상 대형 환경시설사업장 환경분야 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질TMS구축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제어방법, 계측장비설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번 환경법개정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강사로는 환경감시단 류수현 팀장, 드림바이오스 박무영 박사, 한국바이오시스템 현문식 박사, 에코데이 최홍복 박사 등이다.

해양수산부, 미래 해양전략 수립, 시민도 참여한다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해양전략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향후 해양수산분야의 전략수립방향과 주요 정책과제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해양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김성진 장관 및 조동성 서울대 교수, 해양수산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참여형 전략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헌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
키로 했다.

이날 해양관할권 분과 등 총 16개 분과에서 제
시된 정책과제들은 향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와 함께 자문단 회의 및 정책고객시
스템(PCRM) 등을 통한 평가과정을 거쳐 해양전
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장현 미래해양전략단장은 “앞으로 전략수립
과정에는 국민의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반영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어필하는 해양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아름다운 도로환경 만들기 추진

건설교통부는 역사문화 유적지 또는 관광지와
연결되는 국도를 단순한 이동통로가 아닌 휴식,
조망,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경관도로(Scenic
Road) 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수립하여 단계적
으로 이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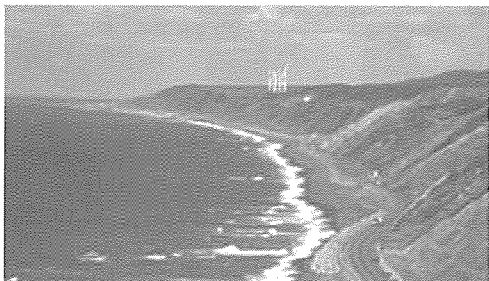
이를 위해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을 연계
(네트워크화)해서 역사문화 유적지나 관광휴양
지 등에 이르는 국도를 그 특성에 맞는 경관도로
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친근한 사회기반시설
(SOC)의 하나로 인식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기반
시설의 품격을 확보하여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
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 문화 진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제도와
웰빙 열풍으로 여가 선용을 위한 도로이용이 점

※ 미국에서는 ‘Scenic Byways’ 라는 사업을
10여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작년
부터 ‘풍경가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국 Highland Scenic High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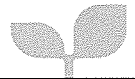
일본 풍경가도-북해도 기후 루트



국도 3호선 경남 사천 ~ 남해 연결도로
(사천8경 및 남해 12경 중 1경)



국도 36호선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장회제 구간)



차 확대 추세에 있다.

그동안 도로 투자가 양적 확장의 건설에 치중되었으나, 도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도로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생활공간이 되도록 휴식공간, 조망공간,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 만큼, 내년까지 경관도로에 대한 개념과 기술적 사항들을 정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부터 각 도별 1개소씩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경관도로 정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도로에 대해서는 쉼터(휴게소) 및 전망대, 역사문화적인 조형물 설치,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도로변 꽃길 조성 등을 시행하게 되며, 지역 관리주체의 참여주도형 사업 구간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로 개발키로 하고, 7대 기술기반 고효율 에너지 기기 개발사업(THE 7 Runners Program)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7대 기기는 보일러(국내에너지소비량의 17.9%), 전동기(6.7%), 공업로(5.2%), 건조기(3.8%), 조명기기(3.3%), 냉난방기기(2.4%), 가전기기(1.9%)로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41.2%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기기별 에너지이용 효율이 40~89%에 머물고 있어 효율향상 시 에너지 절감량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대 기기에 대해 각각 기술개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기술개발에서 보급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중심, 수요자와 개발자의 공동연구를 강조해 에너지고효율기기의 성장동력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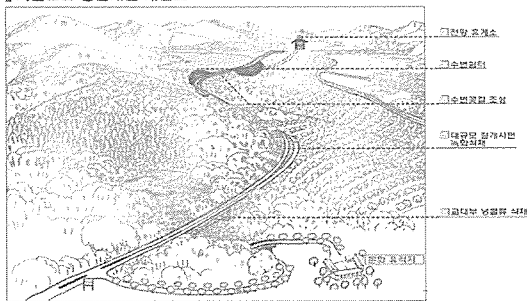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2년 이후 181만8000TOE의 에너지절감과 이에 따른 799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150만7000TC의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년 에너지기술전망 (ETP 2050)에서는 에너지문제에 대응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일본도 신국가 에너지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지금보다 에너지소비효율 30% 개선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각국이 에너지효율 향상을 국가적 이슈로 대응하고 있다. ◀

기존도로 경관개선 개념도



기존도로 경관개선 개념도

산자부, 고효율 에너지기기 개발 '올인'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지난 10월에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기술개발에 투입해 7대 에너지 다소비 기기를 세계 최고수준의 고효율기기